



23일 강원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준결승전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김영미 선수가 스톤을 투구하고 있다. 선수들의 경기복 상의와 무릎에 휠라 로고가 있다. 뉴스스

여자컬링 진짜 금메달은 ‘휠라·신세계’

Biz in 평창

경기복 지원 휠라, 생중계로 브랜드 노출
신세계, 12년부터 컬링에 100억원 지원

평창동계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스타는 단연 여자 컬링이다. 25일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은메달’을 수상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여자컬링의 인기에 휠라와 신세계그룹 같은 컬링 후원 업체들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휠라코리아가 여자 컬링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2년부터. 대한컬링경기연맹과 공식 후원협약을 맺고 남녀 대표팀에게 경기복 및 트레이닝복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활동성과 방한 효과가 뛰어난 경기복을 특별제작해 제공했다.

대국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에 상의와 무릎에



2014년 열린 ‘신세계-이마트 전국컬링대회’ 모습. 동아일보DB

회사 로고를 부착했는데, 한국 여자대표 팀이 결승까지 진출하는 경기가 방송으로 생중계되면서 브랜드 노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휠라 측은 “정확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여자컬링 대표팀의 선전으로 브랜드 로고가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스포츠 브랜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휠라는 1월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실내 빙상장에서 컬링 꿈나무를 위한 ‘휠라와 함께하는 주니어 컬링 교실’을 여는 등

컬링 저변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 컬링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온 신세계그룹도 이번 여자컬링팀의 패거리로 흐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는 2012년 대한컬링경기연맹과 공식 후원협약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대한컬링경기연맹 운영비부터 전국대회 개최, 우수 팀 훈련비 등 총 100억 원 가량을 지원했다.

특히 ‘신세계-이마트 전국컬링대회’는 컬링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실전 경험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 대표적인 대회로 자리잡았다. 신세계그룹 측은 “컬링은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저변이 확산된다면 국민 동계스포츠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좋은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올림픽 효과종목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후원 종목 선정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신학기 준비·입학선물, 온라인 쇼핑 어때요?

11번가는 스마트폰, G마켓은 가구 기획전
위메프 신학기 맞아 연명대 적합 제품 판매

온라인 쇼핑이 기획전을 열고 새학기 준비를 돕는다. 학용품과 가방부터 휴대전화와 가구 등 입학 선물로 인기 있는 아이템까지 할인가에 선보인다.

SK플래닛 11번가는 28일까지 SK텔레콤 휴대전화 기획전을 열고 출고가 20만~30만원대의 실속형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14종을 한데 모아 판매한다. 특히 예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키즈폰이 눈길을 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디즈니와 손잡고 출시한 캐릭터 키즈폰인 ‘준3 스페셜 에디션’이다. 전화 통화부터 실시간 위치 확인, 안심 지역 이탈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갤럭시 온7 2016’과 ‘갤럭시온7 프라임 2018’, ‘LG X4+’, ‘갤럭시와이드2’ 등의 실속형 스마트폰도 판매한다. 일명 고3폰으로 유명한 ‘스마트 폴더폰’도 준비했다. 이번 기획전에서 완납으로 구매하면 즉시 할인 3만원이 적용되고, 할부로 구매할 경우에도 3만원 상당의 T가프트를 준다.

G마켓은 3월4까지 일품과 시디즈 브랜드 상



품을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은 일품의 ‘링키 스마트책상 컴팩트세트’와 시디즈의 ‘뉴링과 학생용의자’이다.

위메프도 3월15일까지 신학기맞이 기획전(사진)을 진행한다. 연명대별로 적합한 상품들을 추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유치원생에게 필요한 낮잠이불과 식기·식판부터 대학생에게 유용한 백팩과 봄 신상 패션용품 등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김명근 기자

렛츠런 스포츠단, 국가대표 출신 선수 영입



한국마사회 렛츠런 스포츠단이 유도 이승수(27세, -81kg급), 정원준(25세, -90kg급)과 탁구 허미려(18세) 등 3명의 선수를 영입(사진)했다. 이승수 선수는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로 국내 81kg급 최강자이다. 최근 파리서 열린 그랜드슬램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정원준 선수는 2017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현재 렛츠런 유도단에는 세계랭킹 1위 김민정 선수를 포함해 지난해 아시아선수권 금메달 수상자 김성민 선수 등이 소속돼 있다. 이밖에 여자주니어 국가대표 출신의 탁구 유망주 허미려 선수도 이번엔 렛츠런 탁구단에 참여해 현정화 감독의 지도를 받게 됐다.

정용운 기자

하나금융그룹, 하나통일원정대 평화통일 기원



하나금융그룹이 23일 KTX 강릉역 광장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하나통일원정대 2기(사진) 합창공연을 진행했다. 하나통일원정대는 하나금융과 남북하나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남북한 청년들의 모임이다. 남한 청년 20명과 탈북 청년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올림픽 대표단을 응원하는 ‘버터플라이’를 비롯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힐 더 월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홀로아리랑’ 등의 노래를 불렀다. 김정대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평화올림픽 현장에서 남한 청년들과 탈북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한 뜻 깊은 순간을 간직하자”고 했다.

정정욱 기자

한화리조트, 경칩 맞아 ‘개구리 폭팍’ 이벤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문석)는 경칩을 맞아 ‘개구리 폭팍’ 이벤트를 준비했다. 3월 3일, 오후 7시부터 한화리조트 전국 7개 지점(설악, 용인, 경주, 대천, 지리산, 평창, 해운대) 대면회장에서 동시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경품으로는 가정용 트램폴린, 개구리 무드등, 개구리 우산 등 개구리를 소재로 한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한화리조트 양평에서는 개구리의 ‘개’자가 들어간 사물의 사진을 찍어 프론트에 제시하면 개구리 젤리를 증정하며, 한화리조트 수안보에서는 투숙회원에게 개구리 젤리를 선물한다. 한편, 한화리조트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3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제이드가든 수목원 봄꽃 퀴즈 이벤트’, 10일부터 25일까지는 제이드가든 페이스북에서 ‘봄년화’ 인종 이벤트도 마련했다. 제이드가든 수목원에서도 3월 말까지 케이크 만들기, 라떼아트, 팝아트, 냅킨아트, 캔들아트 등의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김재범 기자

MWC 26일 개막… 5G 신기술 ‘총성없는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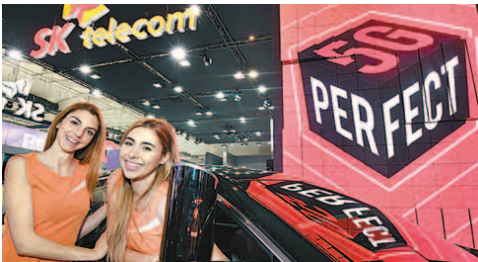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SKT KT 5G 시대 주도권 경쟁 전초전
삼성 ‘갤럭시S9’ 등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전세계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동통신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2018’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다. 3월1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5G와 5G를 활용한 서비스가 대거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국내기업들도 행사에 직접 참여해 신기술 알리기에 나선다.

SK텔레콤은 MWC에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고, 5G 네트워크로 달라질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선보인다.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전시장에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360도 5G 영상통화를 시연한다. 또 인공지능(AI)과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홀로박스’와 가상공간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동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소셜 가상현실(VR)’ 등 5G 시대의 실감형 서비스를 전시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공동관 ‘이노베이션 시티’에 참여하는 KT도 5G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소개한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성공적 시범서비스로 주목을 받은 기세를 이번 MWC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KT는 실제 5G 단말을 전시해 4G 네트워크와 비교해 얼마나 빠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세계 최초 완전무선 V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2018에서 5G 이슈 선전에 나선다. 현지 모델들이 KT(위)와 SK텔레콤의 출품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KT

R 게임 등 5G가 상용화 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서비스도 공개한다.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삼성전자가 전시하는 차세대 전작 스마트폰 ‘갤럭시S9’이다. 삼성전자는 전시 부스 절반 이상을 갤럭시S9에 할애할 방침이다. LG전자의 경우 비전인식과 음성인식 등의 AI 기능을 접목한 ‘LG V30S ThinQ’를 전시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부산관광공사가 3월에 추천한 관광테마.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여울문화마을(현설), 아홉산숲(조목), 낙읍새(빨강), 청사포다윗돌전망대(파랑), 가운데는 명외산 황토굴길(주황).

사진제공 | 부산관광공사

“오이소, 보이소”… 부산의 ‘5색 봄여행’

부산관광공사, 3월 추천여행 선정

부산관광공사는 3월 여행주제로 ‘컬러테라피, 부산의 색깔여행’을 선정, 현여울문화마을(현설), 아홉산숲(조목), 청사포다윗돌전망대(파랑), 낙읍새(빨강), 회동수원지 망피산 황토굴길(주황) 등 추천 테마 다섯 곳을 발표했다.

현여울문화마을은 해안 절벽을 따라 작은 주택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다. 하얀색 담벼락을 따라 걸으면 영화 ‘변호인’ 촬영지, 이승도전망대, 현여울문화마을 예술공방 등을 만날 수 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 3km 정도의 절영해안산책로도 있다.

가장 철마면 아홉산숲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400여년의 역사를 지켜온 숲이다. 영화 ‘군도’, ‘대호’, 드라마 ‘달의 연인’을 촬영해 주목받는 핫 플레이스다.

청사포다윗돌전망대는 푸른 용을 형상화한 높이 20m의 유선형 전망대로 지난해 8월 개장했다. 밤이 되면 조명을 이용해 무지개 다리로 변신하고, 부산시티투어버스 블루라인을 이용하면 쉽게 갈 수 있다.

3월 추천 테마 중 유일하게 먹거리로 선정된 낙읍새는 낙지와 소꿉장, 새우와 갖은 채소를 함께 빨강게 볶은 음식이다. 굴뚝과 재료를 밭에 얹어 김가루, 부추 등과 함께 비벼먹는데 지역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남포동 국제시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동래, 서면, 범일동 등 부산 곳곳에 있다.

회동수원지 망피산 황토굴길은 금정구 회동수원지의 맨발힐링길이다. 망피산 황토굴이 끝나면 망피산 수변테코로 이어지는데 산과 물이 둘러싼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4, 5월 추천관광지도 선정해 월별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CJ제일제당, 주요 제품 가격 6~9% 인상

CJ제일제당이 햇반과 스펀, 냉동만두, 어묵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3월 1일부터 인상한다. 평균 인상률은 6~9%대 수준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수년 간 원가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며 감내해왔지만, 최근 주요 원·부재료 및 가공비, 유통유통 비용이 상승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며 “실제로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소비자 부담과 불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햇반 인상률이 평균 9%로 가장 높다. 쌀 생산 감소로 2017년 햅쌀 가격이 kg당 1958원으로 전년 대비 22.7% 상승했다는 것이 CJ제일제당 측의 설명이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스펀과 냉동만두도 각각 평균 7.3%, 6.4% 인상한다. 어묵도 연육과 대파, 당근, 양배추 등 원부재료 가격 인상으로 평균 9.8% 가격을 인상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